

학술단신

종교연구 16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학술논문집(종교연구) 16집을 발간했다. △한국불교의식문에 보이는 화엄신앙과 사상(해주님·동국대) △의상 화엄학의 실천적 지향(정영근·서울산업대) 등 총 15편을 수록했다. (02)880-6237

전자불전협 회의 참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내년 1월18일 대만 시니카(Sinica) 아카데미 센터에서 열리는 전자불전협의회(EFTI) 제5차 회의에 참석한다. 세계불교 경전과 한역대장경 전산화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종림스님, 윤용석·김중원씨 등은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기술적 해결책 △4마이크로 시스템 △워드 교정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한다.

백련불교논집 8집 나와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백련불교논집> 제8집을 펴냈다. △선문답의 대화구조 - 선어록의 언어특징(박영록·충주산업대) △비트렌슈타인과 용수(이승중·연세대) 등 12편이 실려있다. (02)265-5215

월운스님 고회기념 '불교학 논총' 나왔다

33년간 대장경 한글화 업적 후학들 논문 44편으로 감사

20일 출판기념회

33년간 고려대장경 한글번역 사업에 매진하며 후학들을 양성해 온 동국대경원장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의 고회기념논총 <불교학논총>이 나왔다.

이번 논총에는 <대반야경(大般若經)> 등 83종의 경전 번역, 중앙승가대 교수 역임, 봉선사 강원(83) 및 능엄학림(96) 개설 등 역경·교육·포교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월운스님의 업적을 기리며 그동안 월운스님과 학연을 맺어온 소장 학자 및 제자들의 논문 44편을 수록했다. <불교학논총>은 <경학(經學)사상 불경(佛經) 번역의 방법 불경의 문화 <한역> 대장경의 형성 <현황 > 불경의 언해(譯解)와 국어화 <동국대장경의 어제와 오 > △강원교육과 운허(耘虛)스님 불경의 전파와 의식 등 모두 9부로 구성됐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108', 서구에서의 불교학 연구 및 대장경 전산화 등의 연구논문은 소장 학자들의 참신한 시각이 돋보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속의 108과 한글'



에서 김광해 교수(서울대 국어교육)는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108'이라는 수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임이 분명한 예로만 한정하여도 조선왕조실록 속에서 34회 이상 등장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108이라는 수에 부여된 의미는 내용상으로는 많은 것, 완전한 것, 신성한 것, 형식상으로는 지극한 정성을 상징하는 수"라고 주장한다. 김교수는 "수"를 통해 등장하는 108의 내용은 불사(佛事), 경로(敬老)형사, 인선(人選) 상소(上疏) 등으로,

대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사(國事)에 있어 자신들의 극진하고 정성스런 태도를 표현함과 동시에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분위기 속에서 불교 보급을 위한 은밀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심밀경의 철학적 입장과 선의 수증론(修證論)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는 "해심밀경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입장은 돈오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점수 없는 돈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돈오와 점수를 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유식은 점수로 시작하여 점수로 끝나는 점수→돈오→점수의 수증론을 세우고 있는 반면, 선의 수증론(頓悟漸修)을 제시하는 것은 수증론(頓悟漸修)을 제시하는 수증론(頓悟漸修)까지 제시하고 있다.

김용철 교수(승가대 포교사회학)는 "각국에서 진행되는 대장경 전산화와 그 장래"에서 "앞으로의 불교 정보화는 불교정보의 활용단계 및 불교정보의 확대 재생산 단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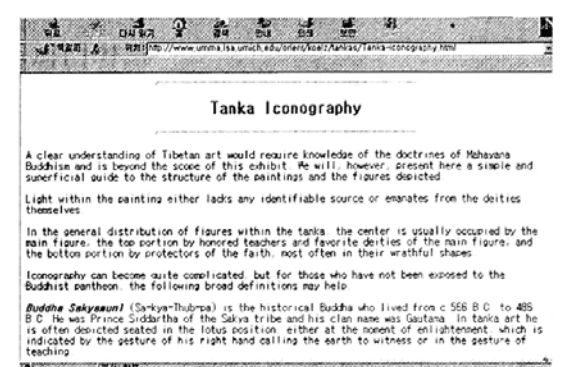
◇월운스님

전환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국제선불교연구소(IRIZ)의 '선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태국 마히돌(Mahidol)대학의 '불교문헌정보 검색(BUDSIR)'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불교 정보화 과정이 자료의 전산화 및 전달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화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삶의 지혜로 연계시키느냐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에서의 불교학 연구현황'에서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교수(용인대 러시아어)는 "러시아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서양의 주관적 유입론, 서구 제재의 신비주의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등 불교에 대한 서양적 오해를 범했다"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저술의 노력(露譯)과 함께 한국불교에 의한 교리 발전에 대한 인식, 극동 문화권 속의 한국문화의 정당한 자리매김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운스님 고회기념 논총 축하행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Tanka Iconography

A clear understanding of Tibetan art would require knowledge of the doctrines of Mahayana Buddhism and is beyond the scope of this exhibit. He will, however, present here a simple and superficial guide to the structure of the paintings and the figures depicted. Light within the painting either lacks any identifiable source or emanates from the deities themselves. In the general distribution of figures within the tanks the center is usually occupied by the main figure, the top portion by honored teachers and favorite deities of the main figure, and the bottom portion by protectors of the faith, most often in their wrathful shades. Iconography can become quite complicated, but for those who have not been exposed to the Buddhist pantheon, the following broad definitions may help.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手印을 찾아서

'탕카도상학' 사이트 등 들어가면 수인의 종류·의미 자세히 열람

불·보살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손 모양, 수인(手印)을 찾아 인터넷을 향해보자.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심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만든 수인은 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은 미국과 유럽 불교사 이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티벳 불교에서는 수인을 중시하여 대일여래의 지권인을 비롯하여 보살, 명왕 등에 따른 다양한 손 모양이 등장한다.

수인은 탕카(Tanka) 등에 나오는 부처님의 손 모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처님의 경우엔 선정인, 향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천지인 등 5가지 수인을 주로 취하고 있다. 대승 불교의 여러 부처님들도 대개 이를 따르고 있지만 아미타불은 구품왕생과 연결되어 9등급의 아미타정인과 내영인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수인은 불상종류에 의한 교리적인 뜻을 가지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불상의 성격과 명칭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탕카도상학(Tanka Iconography) · http://www.umma.lsa.umich.edu/orient/koelz/tankas/Tanka-Iconography.html 사이트에서는 수인의 종류와 그 의미 그리고 모양을 소상히 알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수인은 선정인, 시무외인 등 총 10종.

선정인(禪定印): 부처님이 선정에 든 것을 상징하는 수인. 이외에도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보자.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Hand Mantra Video(http://www.awarinst.com/mantras2.htm) △Tantric Arts(http://www.va.com.au/monks/tantric_arts.html) △Hand Mudras(http://www.artsdnet.getty.edu/ArtsEdNet/hm/Mar98/0334.html)

"현양론" 저자는 한사람이다

최종남씨, 독 함부르크대서 박사학위



원전(原典)의 결여로 산스크리트어 논명(論名)과 전래,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어온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이하 현양론)에 대한 연구는 문이 발표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대 인도학과 최종남(40)씨는 최근 통과한 박사논문 '초기 유가행과 있어서 삼학에 대한 연구 - 현양성교론 권7을 중심으로'에서 "현양론의 중국전래는 현장(玄奘)스님에 의해 전해졌으며, <현양론>의 논명은 티벳 어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현양론>의 저자가 무착(無著)과 세친(世親)이라는 학계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상의 조직과 인용문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양론>의 저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최씨는 산스크리트어 사본과 티벳어 번역 및 한문 번역본의 내용과 문장의 구성 등을 모두 비교했다.

최씨는 "현양론의 중국 전래에 대한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전부분이 한역된 것은 현장스님에 의한 것 뿐이라는 점에서 <유가론>과 같이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논명은 티벳어역의 내용과 한역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티벳어역 'stan boos mam

par bsad pa(자세하게 설명된 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자와 관련하여 (유가론)과 같이 자체론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점, 구조적 연관성으로 인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최씨는 "이제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현양론>의 저자는 동일인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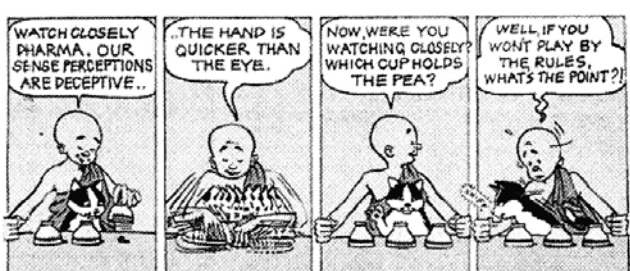
최씨는 이밖에 <현양론>의 전체적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최씨는 "현양론의 설사품(攝事品) 등 11품의 구조는 기존의 주장인 문(問)·수(修)·사(思)의 수행법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사(九事)에 대한 비평, 정(淨)에 대한 의미 설명 등 7개의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양론>의 각 본(本)을 비교하여 산스크리트어 사본과 티벳어 번역본을 정정하는 등 불교문학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최씨는 논문을 통해 <현양론>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 수록하기도 했다. 또 내용·용어·문법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문색인과 산스크리트어 색인을 만들어 첨부하여 문헌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달마야 자세히 보아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지각은 믿을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 눈은 ... 달마야 너 자세히 보았지. 어는 법에 완두콩이 들어있지? (고양이 등등거리며 완두콩을 찾자 당황한 보디는 법칙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해설: 본성을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이 기실 같고, 짐작과 짐작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등의 견지에서 본다면 따로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를 아는 것을 대지(大智)라 한다.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 (http://www.dharm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일주문에서 다비까지. 절에서 배우는 불교. 사찰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사찰에 숨쉬는 불교의 사상과 장인혼.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속에는 불교의 사상이, 부처님의 승결이, 그것을 만든 장인의 불심과 함입된 장인혼이 살아 있다. 하지만 슬랑 그옥한 사찰 속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불교의 상식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집. 이 책은 일주문을 비롯한 산문을 시작으로 각 사찰의 전각, 불·보살상, 탱화를 비롯한 각종 불화화과 내·외형장엄물, 의식구, 장엄구, 광양구, 생활용구, 상징물 등을 사진과 함께 담아 사찰의 전부와 그 속에 깃든 불교의 상식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45항목에 걸친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절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들고 찾기를 권한다. 일주문으로 들어와 절에서 접하는 갖가지 조형물, 상징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찰을 둘러보고 일주문을 나갈 때는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헤자스님은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도선사에서 동진승거하여 청담스님을 모시고 도선사에서 많은 소임을 살았다. 동도사 승가대학에서 경학연찬, 승강사 선원에서 수선인가를 했다. 수덕산 도인사를 창건했고 도선사 부주지 등의 소임을 살면서 학행열을 불태워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2대 총학생회장으로 역임했다. 또한 스님은 17년간 해마다 노원구 할미저지 할미마을을 초빙하여 경로위인잔치를 베풀어왔고 불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충주에 자혜만생원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사림노릇하고 살아가는 법> <그리 위문> <산승명상집> 등이 있다.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종·본·스·님·의·전·생·찾·아·떠·난·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보면 영혼불멸에 대한 체험적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는 사후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록들을 추적해 보았다. 이로써 죽음이란 단지 말이 죽음이지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진시황도 죽었고 일세를 풍미하던 영웅호걸도 모두 죽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정된 죽음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번 태어난 생명은 죽음을 통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무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정을 깨우쳐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사람들은 사느라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알음알이의 본성(本性)을 깨우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나 이외의 것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자성(自性)을 깨우치면 되는 것이다. 자정을 깨우치고 선업을 닦아야 흰빛 밝은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